

연구논문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과 가정 및 학교 영향 요인 검증: 2006년과 2015년 코호트의 비교*

백예은** · 정혜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 공격성)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 가정환경(빈곤, 부모 우울증 여부) 및 학교생활(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 폭력 피해경험, 성적, 학업 스트레스)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자료 중 1990년대생으로 구성된 2006년 코호트(1, 4, 7차)와 2000년대생으로 구성된 2015년 코호트(10, 13, 16차) 간 다집단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 공통적으로 우울·불안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공격성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코호트의 경우 주의집중문제와 위축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2015년 코호트 집단 공통적으로 초·중·고 학교급 시기에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과 학업 스트레스가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코호트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의 우울증 여부가 초등학생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초·중학교 시기에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의집중문제와 위축 문제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위한 단위학교 및 정책 차원의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서행동문제, 청소년기, 코호트 비교, 한국복지패널

* 본 논문은 2024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2024학년도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byeunn7@gmail.com), 제1저자.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chw7@cnu.ac.kr), 교신저자.

I. 서론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학령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불안,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만 12~17세 청소년의 평생 유병률이 1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b).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검진을 통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방안을 핵심과제로 논의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24) 교육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청소년기 정서 문제에 대한 공교육 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4).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은 현 시점에서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학교급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정서행동문제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 나타나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의 결과로 보고(홍경자 1986)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때 가정과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등 학교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시기를 포괄하여 정서행동문제 특성을 파악하고,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간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소득 빈곤과 같은 청소년의 경제적 배경과 청소년의 주된 양육자인 부모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구인회 외 2009; 이상균·유조안 2015; 이영준 외

2003). 이와 더불어 학교환경 요인과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에서는 낮은 학업 성적이나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학업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학교 폭력과 같은 또래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의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의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남석인 외 2014; 반영석 2018; 서운 2014 등).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뿐더러 청소년기에 성장할수록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가정 내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함에 따라(Teyber 1983), 가정과 학교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각 학교급 시점마다 달라지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하나의 학교급에 속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나, 초기시점의 독립변인만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각각의 학교급 시기에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차~16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3년마다 조사 가정 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부가조사자료를 실시하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차년도인 경우 2006년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4차(중학교 1, 2, 3학년), 7차(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반복 수집하였으며 10차년도(2015년)부터는 새롭게 초등학교 4, 5, 6학년을 표집하여 13차(중학교 1, 2, 3학년), 16차(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반복 조사하였다. 즉, 아동부가조사자료는 서로 다른 세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된 두 개의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코호트(1, 3, 7차년도)의 경우 1993년생~1997년생을 대상으로 표집되었고 2015년 코호트(10, 13, 16차년도)의 경우 2002년생~2006년생을 대상으로 표집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세대에 속한 개인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조사한 코호트는 사회문화적 사건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공유하게 되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적응하는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는 각각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예컨대 2015년 코호트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 일컬어지며(McCrindle & Fell 2023), 2015년 코호트 집단의 경우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의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학교 폐쇄를 경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2000년대의 출생집단이 1990년대에 출생한 집단보다 학교폭력 노출 위험이 낮고, 학업중단을 또한 낮아졌다는 조사결과(양태정 2019; 이자형 2017) 등을 고려했을 때 2006년 코호트 집단과 2015년 코호트 집단 간에는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을 비롯하여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코호트의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이 상이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하며, 더불어 각각의 코호트별로 앞서 언급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을 초·중·고등학교 시기별로 투입하여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2006년과 2015년 코호트의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2006년과 2015년 코호트의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가정환경(소득, 부모 우울증 여부) 및 학교생활(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폭력 피해경험, 성적, 학업 스트레스)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정서행동문제

정서행동문제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을 의미하여 정서·행동·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로 이상이 있는 행동양식으로 정의된다(조정숙 2015). 정서행동문제는 학자들마다 분류하고 정의하는 데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울, 두려움, 외로움, 위축, 주의집중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측정함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Achenach(1991)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외(1998)가 한국판으로 변안한 K-CBCL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해당 척도에서는 내재화(우울·불안, 위축) 및 외현화(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비행) 정서행동문제를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울·불안은 정신 병리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이지만 부적절하게 과도한 양상을 나타낼 때 정서행동문제로 간주되며 정서 반응과 더불어 행동적·생리적 역기능 상태를 포괄한다. 위축 또한 우울·불안과 함께 내재화된 정서행동문제의 한 유형으로 주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러드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로서 사회생활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된다(Rubin & Chronis-Tuscano 2021). 이러한 우울·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은 표면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주목하여야 하는 정서행동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의집중이란 단기간의 목표 달성이나 과제 수행을 위해 자신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주의집중문제는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과잉행동으로 이어져 다른 정서 및 행동장애와 관련이 깊은 정서행동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Dulcan 1997). 이와 더불어 외현화 정서행동문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공격성은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심리적 위해 행동을 통칭하는데(Coie & Dodge 1998),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성인기에 범죄행동과 같은 심각한 품행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된다(배도희·오경자 2010; Newman et al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유형으로 언급되는 우울·불안,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네 가지 유형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에 따르면 아동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주위 환경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가정, 학교 내 친구·교사 관계 등의 미시체계(microsystem)부터 사회의

가치관, 제도, 법률과 같은 거시체계(macrosystem), 그리고 시간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시간체계(chronosystem)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특히 청소년은 미시체계 안에서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경험과 같이 자신을 둘러싼 근접맥락(proximal context)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이에 따라 그간 교육학계에서는 근접맥락에 해당되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은 발달 단계 특성상 가정에 의존하며 가정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가정의 소득 빈곤과 같은 경제적 배경은 식품, 의료 지원, 주거 환경 등의 물질적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 가정일수록 사교육과 같은 교육 관련 활동이나 여가활동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은 발달 환경 격차를 유발해 청소년기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가정환경 요인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구인회 외(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소득이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족을 빈곤층으로 구분하였는데, 빈곤 가정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선(2008)의 연구에서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가구에 속한 초등학생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더불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균·유조안(2015)의 연구에서는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법정모부자, 차상위층에 해당될 경우 빈곤가정으로 분류하였는데, 빈곤 가정의 자녀들이 공격성과 주의집중문제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가구 소득, 빈곤 여부와 같은 가정의 경제적 환경과 더불어 부모의 심리적 상태 또한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와 같이 아동·청소년기의 정서행동문제를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부모의 우울증 증상과 아동의 주의집중문제 행동은 높은 상관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며(최윤영 외 2002; 이영준 외 2003; Nelson et al 2007)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어머니를 둔 청소년일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자주 보여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외 2014). 또한 아버지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우울 증상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증가율과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chael et al 2011).

가정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 역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령기 시기에 청소년은 학교에서 다양한 발달 과업에 직

면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교과목을 통해 주어지는 과제, 시험과 같은 학업을 수행하고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는 등 학교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 관련 요인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 경험이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운(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경험이 우울,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신현·이성식(2017)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경험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경험이 위축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석인 외 2014).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Kim et al(2006)의 연구에서 또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가 학교 내 괴롭힘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주된 과업인 학업과 관련된 청소년의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 또한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영식(2018)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민주·이동귀(2018)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차미숙(2024)의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동균·권순용(2019)의 연구에서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불안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ubramani & Kadhiraivan (2017)의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상기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근접맥락에 해당되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이 청소년 시기의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가정에서 학교로 점차 넓어짐과 더불어 학교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교급 시기마다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변인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이할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시기 각각의 가정과 학교생활 변인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환경이나 학교에서의 경험과 같은 근접 맥락의 요소들은 사회의 가치관, 제도, 시간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같은 보다 더 거시적인 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며(Bronfenbrenner 1979), 이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

한 청소년은 동일한 거시적인 체계 속에서 사회문화적 사건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0년대 출생집단은 2021년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 밖의 사회적 활동이 단절되고, 등교 중지를 경험한 특수한 세대이다. 이러한 사회적 단절의 상황은 청소년 정서행동문제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가현·조명근 2024; 김현수 2020; 최혜정·김형관 2021), ‘2000년대 출생집단의 경우 이전의 세대와 구분되는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출생집단은 이전 세대의 출생집단과 서로 다른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아래에서 학교생활을 경험했고, 1990년대 세대와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노출 위험이나 학업중단률이 낮아진 것으로도 보고되어(양태정 2019; 이자형 2017) 코호트 간 서로 다른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코호트 내에서의 근접맥락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탐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내에서 변화 양상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변인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코호트 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시간체계와 같은 보다 거시적인 체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7,07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세 가지 조사표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조사되며 이때 1차, 4차, 7차, 10차, 13차, 16차년도에 경우 아동부가조사가 실시되어 1차년도(2006년) 기준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 중인 759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어 4차년도에는 중학교에, 7차년도에는 1, 4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응답자를 조사 대상으로 반복 측정되었다. 이에 10차년도(2015년)의 경우 초등학교 4, 5, 6학년 471명을 신규 표집하여 1-4·7차년도와 10-13-16차년도는 서로 다른 시점의 아동 코호트로 아동 세대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아동부가조사가 시행된 1,

4, 7차년도(2006 코호트)과 10, 13, 16차년도(2015 코호트)자료를 코호트별로 각각 분석하여 코호트별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을 검증하였다.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모든 시점의 설문문항에 응답한 학생인 2006년 코호트 414명과 2015년 코호트 299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에 해당되는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변인에 대한 척도는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외(1998)가 번안한 한국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 Child Behavior Checklist)의 문제행동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해당된다. 이에 변인에 대한 문항 내용과 신뢰도 검증결과 및 기술통계를 아래의 <표 1>, <표 2>에 정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 그런 편이다(2), 자주 그렇다(3)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6개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측정된 설문문항에 대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평균 값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변인의 시점별 신뢰도 분석의 결과, 최소 .755로 나타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종속변인 문항 내용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변인	문항내용	신뢰도 (Cronbach's α)					
		1차	4차	7차	10차	13차	16차
우울·불안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등 13문항	.817	.862	.854	.838	.859	.834
주의집중 문제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등 11문항	.782	.828	.854	.856	.827	.826
위축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등 9문항	.755	.790	.802	.808	.795	.778
공격성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등 18문항	.844	.857	.882	.829	.828	.787

<표 2> 정서행동문제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인	1차		4차		7차		10차		13차		16차	
	M	SD										
우울·불안	1.336	0.319	1.297	0.323	1.315	0.322	1.241	0.281	1.247	0.293	1.243	0.280
주의 집중 문제	1.371	0.331	1.406	0.356	1.375	0.361	1.231	0.309	1.260	0.309	1.279	0.303
위축	1.325	0.342	1.295	0.325	1.320	0.340	1.208	0.297	1.258	0.324	1.323	0.324
공격성	1.108	0.127	1.094	0.129	1.086	0.167	1.132	0.185	1.132	0.184	1.084	0.129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3>에 정리된 변인을 각 시점별로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해당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가구 빈곤 여부와 부모 우울증 여부 변인을 투입하였다. 빈곤 여부의 경우 조사대상 아동의 가구의 경상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해당된다. 더불어 부모 우울증 여부의 경우 아동이 속한 가구의 성인 가구원 조사에서 아동의 부모에 해당되는 성인 가구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때 우울증 여부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11 척도를 통해 11개 문항의 합산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해당 임상적 기준점수 이상일 때 1로 코딩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빈곤 및 부모 우울증 여부의 경우 모두 아동부가조사가 실시된 6개의 시점(1, 4, 7, 10, 13, 16차)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 관련 변인의 경우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인식인 심리사회적 학교환경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함께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다. 7차년도부터 조사된 학업 스트레스 변인을 제외하고, 그 외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 모든 시점에서 조사되어, 분석에 활용한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게 조

사된 설문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각 변인의 신뢰도가 최소 .721에서 최대 .961으로 나타나 분석에 활용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2006년과 2015년 코호트 각각에 대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2006년 코호트 집단의 경우 최대 .470(1차 우울·불안-학교폭력피해경험), 2015년 코호트 집단의 경우 최대 .458(10차 주의집중문제-학교폭력피해경험)의 상관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독립변인 문항 내용 및 척도

영역	변인	문항 내용 및 변인 설명	척도	
가정환경	빈곤 여부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 여부	저소득층 가구(1), 일반 가구(0)	
	부모 우울증 여부	부모의 CESD-11 척도 기준 임상적 우울증 여부	임상적 우울증(1), 비우울증(0)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생활이 즐겁다’ 등 9문항	4점 리커트 척도(1)	
	학교폭력 피해경험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등 6문항		
	학교 성적	전 과목 평균 학교 성적	5점 리커트 척도(2)	
통제변인	학업 스트레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4문항	4점 리커트 척도(1)	
	학년	1차, 10차	초등학교 4, 5, 6학년	4학년(0, 준거집단) 5학년(1), 6학년(1)
		4차, 13차	중학교 1, 2, 3학년	1학년(0, 준거집단) 2학년(1), 3학년(1)
		7차, 16차	고등학교 1, 2, 3학년	1학년(0, 준거집단) 2학년(1), 3학년(1)
성별		여(0), 남(1)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항상 그렇다

2) 1: 아주 못함, 2: 중간 이하, 3: 중간, 4: 중간 이상, 5: 아주 잘함.

<표 4> 독립변인의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1차	4차	7차	10차	13차	16차
가정환경	빈곤 여부						
	빈곤 가구(0)	298	307	342	263	267	269
	저소득층 가구(1)	116	107	72	36	32	30
	부모 우울증 여부						
	비우울증(0)	297	296	358	270	258	265
	임상적 우울증(1)	117	118	56	29	41	34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3.248(0.390)	3.213(0.377)	3.145(0.386)	3.421(0.368)	3.396(0.360)	3.349(0.363)
학교생활	학교폭력 피해경험	1.296(0.435)	1.147(0.325)	1.085(0.226)	1.160(0.333)	1.088(0.201)	1.025(0.109)
	성적	3.480(0.877)	3.040(0.975)	3.010(0.973)	3.770(0.860)	3.460(1.001)	3.140(0.923)
	학업 스트레스	-	-	2.512(0.663)	1.669(0.618)	2.069(0.707)	2.488(0.681)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 각각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 분석방법으로, 다양한 성장함수를 통하여 반복 측정된 변인의 변화 양상을 잘 나타내는 모형을 탐색할 수 있다(Meredith & Tisak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코호트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하는 무조건 잠재성장모형(unconditional LGM)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시점에서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각각의 코호트별로 독립변인을 투입한 조건 잠재성장모형(conditional LG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수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장함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무변화 성장모형과 일차 선형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자료와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일차 선형 성장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이 1수준(개인 내 모형)과 2수준(개인 간 모형)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ti} = \pi_{0i} \times 1 + \pi_{1i} \times (t - 1) + \epsilon_{ti}$$

$$\pi_{0i} = \beta_{00} + \zeta_{0i}, \quad \pi_{1i} = \beta_{10} + \zeta_{1i} \quad (1)$$

위의 식에서 y_{ti} 는 $t(t = 1, 2, 3)$ 시점에서의 학생 $i(i = 1, 2, 3, \dots, n)$ 의 종속변인을 의미하며 π_{0i} 는 초기치, π_{1i} 는 선형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때 $(t - 1)$ 은 성장 요인 부하량으로, 3개 시점에 대한 선형 변화율에 대해 (0, 1, 2)와 같이 고정 부하량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식(1)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통해 추정되는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이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에 추정된 모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집단 간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때 형태동일성은 각 집단의 성장모형 형태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측정동일성은 여러 시점에 걸쳐 동일한 요인구조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Whitaker & McKinney 2007).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형태동일성이 만족되면, 초기치(π_{0i})와 변화율(π_{1i})에 대해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부여하여 제약하므로, 형태동일성의 성립이 곧 측정동일성의 성립을 의미한다(홍세희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두 코호트 집단에 대하여 무변화 성장모형과 일차 선형 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더 적합한 성장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과 같은 구조방정식 기반의 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χ^2 검증과 더불어 CFI(comparative fit index)(Bentler 1990), TLI(Tucker-Lewis index)(Tucker & Lewis 197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 Lind 1980),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등의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다(홍세희 2000). 각각의 적합도 지수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FI와 TLI는 영모형(null model)의 공분산 행렬과 관찰된 자료의 공분산 행렬의 차이를 의미하는 F_n 과 연구모형에 의해서 재생산된 공분산 행렬과 관찰된 자료의 공분산 행렬의 차이를 의미하는 F_t 를

비교하여, F_t 가 개선된 정도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증분합치도 지수(incremental fit measure)이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연구모형이 관찰된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해석되며 .90 이상이면 적합한 수준으로 제안된 바 있다(Bentler & Bonnett 1980). 이어서 RMSEA은 모집단과 연구모형 간 차이를 나타내는 불량도 지수로, RMSEA 값이 작을수록 연구모형과 관찰된 자료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MSEA 값을 판단함에 있어서 Browne & Cudeck(1993)이 제안한 기준이 널리 활용되는데, 0.05 이하일 때 매우 좋고(close) 0.08이하이면 괜찮은 수준(resonable), 0.10을 초과하면 수용 불가능한(unacceptable)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RMR은 관찰된 공분산 행렬과 연구모형을 통해 재생산된 공분산 행렬의 차이인 잔차 공분산 행렬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합치도 지수이다(이현숙 외 2010).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Hu & Bentler(1998)가 제안한 기준에 따라 .08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합도 비교를 통하여 최종 성장모형을 선택한 뒤에,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여 두 코호트 간 동일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이어서 성장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동일성을 검증함으로써 두 코호트 집단의 변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무조건 잠재성장모형과 다 집단 분석을 통해 두 코호트 집단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뒤, 가정환경(빈곤 여부, 부모 우울증 여부)과 학교생활(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폭력 피해경험, 성적, 학업 스트레스)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조건 잠재성장모형을 각각의 코호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이 동일한 시점의 종속변인(정서행동문제)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Mplus 8.10(Muthen & Muthen 1998-202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 탐색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015년 코호트 집단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두 코호트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정서

행동문제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일차 선형 성장모형의 χ^2 검증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TLI와 CFI가 0.90 이상이며 RMSEA와 SRMR가 각각 0.08, 0.05 이하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정서행동문제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구분		χ^2	df	TLI	CFI	RMSEA	SRMR
정서행동문제	성장모형						
우울·불안	무변화	16.907***	4	0.956	0.942	0.067	0.080
	선형	1.722	1	0.990	0.997	0.032	0.012
주의집중문제	무변화	10.261*	4	0.984	0.978	0.047	0.034
	선형	3.231	1	0.977	0.992	0.056	0.018
위축	무변화	22.980***	4	0.937	0.916	0.082	0.073
	선형	2.706	1	0.977	0.992	0.049	0.015
공격성	무변화	66.492***	4	0.814	0.752	0.148	0.122
	선형	3.724	1	0.968	0.989	0.062	0.020

* $p < .05$, ** $p < .01$, *** $p < .001$.

이에 따라 모든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대하여 일차 선형 성장모형을 가정하여 성장모수를 추정된 결과(<표 6>),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의 경우 변화율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축과 공격성의 경우에서 변화율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축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위축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행동문제 유형 간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표 6>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 추정치

모수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	공격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치	평균	1.292*** (0.011)	1.318*** (0.012)	1.270*** (0.012)	1.197*** (0.008)
	분산	0.043*** (0.007)	0.057*** (0.008)	0.023*** (0.008)	0.026*** (0.004)
변화율	평균	-0.005 (0.007)	0.012 (0.007)	0.023** (0.008)	-0.030*** (0.005)
	분산	0.013*** (0.003)	0.008** (0.004)	0.012** (0.004)	0.008*** (0.002)
초기치-변화율 공분산		-0.010* (0.004)	-0.009* (0.005)	-0.010* (0.004)	-0.007*** (0.002)

* $p < .05$, ** $p < .01$, *** $p < .001$.

2. 2006년, 2015년 코호트의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 탐색

2006년, 2015년 코호트 각각의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을 탐색하기에 앞서 두 집단에 대한 형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서행동문제의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7>에 정리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을 살펴보면 2006년 코호트 집단의 경우 TLI가 선형 성장모형에서 각각 0.980, 0.981, 0.985으로 무변화 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CFI는 무변화 성장모형보다 낮았으나 각각 0.939, 0.943, 0.954으로 모두 0.90 이상으로 나타나 선형 성장모형 또한 적합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SRMR의 경우 선형 성장모형이 무변화 성장모형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형 성장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

한편 2015 코호트 집단의 경우,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대한 적합도 비교 결과를 살펴봤을 때 모든 유형이 선형 성장모형의 TLI, CFI, RMSEA, SRMR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6년과 2015년 코호트 두 집단의

1) 자유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RMSEA 값은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가 수가 작아, 자유도가 낮은 경우 나쁜 적합도를 보이게 되므로 CFI, TLI 값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TLI, CFI, SRMR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판단하였음.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에 대해 일차 선형 성장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되어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이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코호트 간 정서행동문제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구분		χ^2	df	TLI	CFI	RMSEA	SRMR		
코호트	정서행동문제 성장모형								
2006년 코호트	우울·불안	무변화	7.782	4	0.966	0.975	0.048	0.067	
		선형	3.286	1	0.980	0.939	0.074	0.022	
	주의집중문제	무변화	7.643	4	0.979	0.984	0.047	0.033	
		선형	4.207	1	0.981	0.943	0.088	0.028	
	위축	무변화	8.354*	4	0.971	0.979	0.051	0.070	
		선형	3.347	1	0.985	0.954	0.075	0.021	
	공격성	무변화	42.645***	4	0.742	0.807	0.153	0.159	
		선형	0.576	1	1.000	1.000	0.000	0.010	
	2015년 코호트	우울·불안	무변화	1.703***	4	0.833	0.875	0.122	0.123
			선형	0.099	1	1.000	1.000	0.000	0.005
주의집중문제		무변화	9.340*	4	0.935	0.952	0.067	0.085	
		선형	0.092	1	1.000	1.000	0.000	0.005	
위축		무변화	32.705	4	0.592	0.694	0.155	0.118	
		선형	0.163	1	1.000	1.000	0.000	0.006	
공격성		무변화	36.159***	4	0.360	0.520	0.164	0.098	
		선형	5.219	1	0.916	0.748	0.119	0.047	

* $p < .05$, ** $p < .01$, *** $p < .001$.

3. 2006년, 2015년 코호트 간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 비교

코호트 간 정서문제행동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코호트 집단에 대한 각각의 선형 성장모형 추정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코호트별 정서행동문제 변화 양상 추정치

모수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		공격성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2006년 코호트	2015년 코호트	2006년 코호트	2015년 코호트	2006년 코호트	2015년 코호트	2006년 코호트	2015년 코호트	
초 기 치	평균	1.327*** (0.015)	1.242** (0.016)	1.380*** (0.016)	1.232*** (0.017)	1.315*** (0.016)	1.207*** (0.017)	1.238*** (0.011)	1.139*** (0.010)
	분산	0.038*** (0.010)	0.047*** (0.001)	0.052*** (0.011)	0.048*** (0.011)	0.049*** (0.010)	0.040*** (0.011)	0.029*** (0.005)	0.016*** (0.004)
변 화 율	평균	-0.010 (0.010)	0.001 (0.010)	0.002 (0.010)	0.024** (0.011)	-0.001 (0.010)	0.057*** (0.011)	-0.032*** (0.007)	-0.026*** (0.006)
	분산	0.008 (0.005)	0.020*** (0.004)	0.009 (0.006)	0.005 (0.005)	0.011* (0.005)	0.013* (0.006)	0.011 (0.003)	0.004** (0.002)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	-0.005 (0.006)	-0.017** (0.001)	-0.005 (0.006)	-0.011 (0.007)	-0.008 (0.006)	-0.010 (0.006)	-0.008** (0.003)	-0.006** (0.002)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살펴보면 각각의 정서행동문제의 초기치는 2006년 코호트가 2015년 코호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6년 코호트의 초기 청소년이 2015년 코호트보다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불안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문제와 위축의 변화율의 경우 2006년 코호트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코호트의 경우 0.024, 0.057으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중, 고등학교 시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집중문제와 위축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성의 경우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산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치 분산의 경우 모든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대하여 2006년, 2015년 코호트 모두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치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율 분산의 경우 정서행동유형과 코호트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2006년 코호트는 위축에 대한 변화율 분산이, 2015년 코호트는 주의집중문제를 제외한 정서행동문제 변화율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두 코호트 집단 공통적으로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 시점(초등학교 시기)에서 정서행동문제가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성의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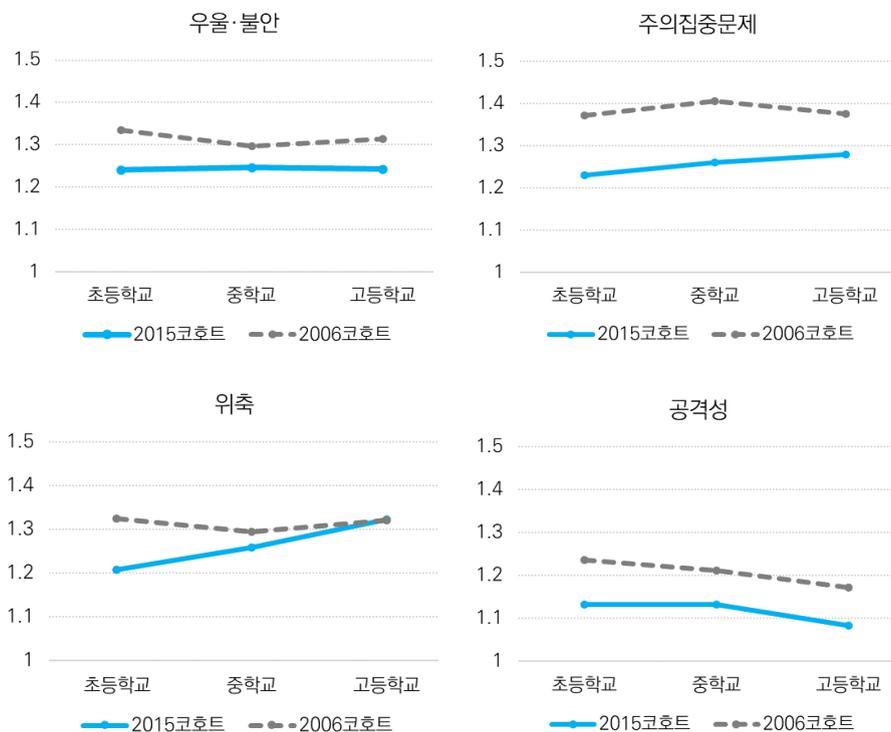
이에 앞서 살펴본 두 코호트 간의 잠재성장요인 추정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두 코호트 집단 간 초기치와 변화율을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기저모형)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잠재성장요인을 고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우선, 기저모형과 두 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 χ^2 차이검증 결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기저모형과 비교했을 때 기저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 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잠재성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초기치만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과 변화율만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에 대하여 기저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모든 정서행동문제 유형에서 초기치 고정모형의 경우 χ^2 차이검증 결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기저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저모형과 변화율 고정모형을 비교한 결과, 우울·불안, 공격성의 경우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합도 또한 변화율 고정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불안, 공격성의 경우 변화율 고정모형이, 주의집중문제와 위축의 경우 기저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잠재성장요인 추정 결과와 종합해 보면 두 코호트 간 우울·불안, 공격성의 초기치는 서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만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주의집중문제와 위축의 경우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두 코호트 간 차이가 존재하며 2015년 코호트의 경우 2006년 코호트와 달리 중, 고등학교 시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집중문제와 위축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정서행동문제 변화양상의 코호트 간 차이

종속 변인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우울· 불안	기저모형	3.384	2	0.994	0.981	0.044	0.017
	초기치·변화율 고정모형	23.086	4	0.913	0.869	0.116	0.074
	초기치 고정모형	18.201	3	0.930	0.861	0.119	0.059
	변화율 고정모형	3.927	3	0.996	0.992	0.029	0.020
주의 집중 문제	기저모형	3.510	2	0.991	0.973	0.057	0.020
	초기치·변화율 고정모형	50.848	4	0.814	0.721	0.181	0.125
	초기치 고정모형	43.018	3	0.841	0.683	0.193	0.097
	변화율 고정모형	6.611	3	0.986	0.971	0.058	0.025
위축	기저모형	3.510	2	0.993	0.980	0.046	0.017
	초기치·변화율 고정모형	26.826	4	0.897	0.846	0.127	0.069
	초기치 고정모형	25.387	3	0.899	0.799	0.145	0.073
	변화율 고정모형	18.232	3	0.932	0.863	0.119	0.051
공격성	기저모형	5.796	2	0.981	0.943	0.073	0.031
	초기치·변화율 고정모형	73.817	4	0.651	0.477	0.221	0.18
	초기치 고정모형	46.686	3	0.782	0.782	0.202	0.103
	변화율 고정모형	6.261	3	0.984	0.967	0.055	0.031

2006년 코호트와 2015년 코호트의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 유형별 평균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06년 코호트, 2015년 코호트의 정서행동문제 학교급별 평균 변화

4. 초·중·고등학교 시기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2006년과 2015년 코호트 두 집단별로 초·중·고등학교 각 시점에서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가정과 학교생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우선 <표 10>에 제시된 우울·불안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코호트 집단 분석결과 초·중학교 시기에 공통적으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폭력 피해경험, 성적,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생이 경험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우울·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고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 특징적으로 부모가 우울증인 가정환경에 처한

<표 10>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2015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73	0.043	-0.087	0.044	0.044	0.048	0.009	0.046	0.009
	부모 우울증 여부	0.096*	0.047	0.103	0.002	0.039	0.002	-0.001	0.043	-0.001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095*	0.041	-0.127	-0.111**	0.034	-0.140	-0.130**	0.041	-0.168
	학교폭력 피해경험	0.264***	0.042	0.320	0.138**	0.065	0.097	0.140	0.119	0.054
	성적	0.033*	0.017	0.105	0.034*	0.015	0.120	-0.002	0.016	-0.007
	학업 스트레스	0.129***	0.024	0.290	0.133***	0.020	0.330	0.112***	0.021	0.273
2006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12	0.030	-0.017	-0.019	0.032	-0.026	0.015	0.038	0.018
	부모 우울증 여부	0.030	0.030	0.043	0.026	0.030	0.038	-0.028	0.041	-0.031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157***	0.037	-0.195	-0.168***	0.029	-0.201	-0.139***	0.037	-0.170
	학교폭력 피해경험	0.267***	0.031	0.370	0.347***	0.038	0.357	0.278***	0.060	0.199
	성적	-0.014	0.017	-0.03	-0.004	0.015	-0.013	-0.009	0.015	-0.027
	학업 스트레스		-			-		0.086***	0.021	0.180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2015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37	0.045	-0.040	0.017	0.048	0.017	-0.026	0.050	-0.026
	부모 우울증 여부	0.080	0.049	0.079	0.020	0.043	0.023	0.057	0.048	0.060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209***	0.044	-0.255	-0.160***	0.037	-0.190	-0.183***	0.045	-0.219
	학교폭력 피해경험	0.291***	0.043	0.321	0.209**	0.070	0.138	0.401**	0.132	0.144
	성적	0.001	0.018	0.002	-0.024	0.017	-0.080	-0.067***	0.018	-0.204
	학업 스트레스	0.080***	0.026	0.164	0.114***	0.022	0.266	0.096***	0.023	0.215
2006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19	0.030	-0.026	0.010	0.032	0.013	-0.038	0.040	-0.041
	부모 우울증 여부	0.048	0.030	0.067	-0.004	0.031	-0.005	0.015	0.043	0.015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268***	0.037	-0.321	-0.256***	0.029	-0.281	-0.253***	0.039	-0.278
	학교폭력 피해경험	0.177***	0.031	0.236	0.344***	0.038	0.326	0.309***	0.064	0.198
	성적	-0.041*	0.016	-0.109	-0.059***	0.015	-0.167	-0.047**	0.016	-0.131
	학업 스트레스	-	-	-	-	-	-	0.076***	0.022	0.144

* $p < .05$, ** $p < .01$, *** $p < .001$.

학생일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 고등학교 시기의 경우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학생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학업 스트레스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코호트 집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초·중학교 시기의 경우,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2015년 코호트 집단과 동일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코호트 집단과 달리 성적에 따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등학교 시기의 경우,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은 우울·불안에 대하여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업 스트레스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문제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표 11>), 2015년 코호트 집단 분석결과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공통적으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의 주의집중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생이 경험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부정적이고,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의 주의집중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 특징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주의집중문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06 코호트 집단 분석결과, 2015 코호트 집단과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났으나 초·중학교 시기의 경우 성적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축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표 12>), 2015년 코호트 집단 분석결과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공통적으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의 주의집중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생이 경험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부정적이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의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시기 특징적으로 학교폭력 경험이 위축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 코호트 집단 분석결과, 심리사회적 학교환경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초·중·고등학교 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초등학교 시기의 경우 성적이 위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2015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15	0.046	-0.016	0.103	0.053	0.100	0.027	0.057	0.025
	부모 우울증 여부	0.063	0.051	0.064	0.024	0.048	0.026	0.027	0.055	0.027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155***	0.045	-0.195	-0.134***	0.040	-0.151	-0.170**	0.051	-0.191
	학교폭력 피해경험	0.316***	0.045	0.359	0.017	0.078	0.011	-0.012	0.149	-0.004
	성적	0.021	0.018	0.061	-0.001	0.018	-0.005	-0.034	0.020	-0.098
	학업 스트레스	0.078**	0.026	0.165	0.093***	0.024	0.207	0.051*	0.026	0.108
2006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38	0.033	-0.051	0.004	0.032	0.006	0.011	0.039	0.012
	부모 우울증 여부	0.028	0.032	0.037	0.010	0.031	0.015	0.038	0.042	0.039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187***	0.040	-0.216	-0.178***	0.030	-0.210	-0.147***	0.038	-0.170
	학교폭력 피해경험	0.186***	0.033	0.240	0.234***	0.038	0.239	0.355***	0.063	0.241
	성적	-0.040	0.018	-0.104	-0.009	0.015	-0.027	-0.027	0.016	-0.080
	학업 스트레스	-	-	-	-	-	-	0.037	0.021	0.074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2015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00	0.031	0.000	0.029	0.030	0.049	0.035	0.023	0.082
	부모 우울증 여부	0.035	0.034	0.057	0.044	0.027	0.084	-0.031	0.022	-0.075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111***	0.029	-0.223	-0.105***	0.022	-0.210	-0.042*	0.021	-0.117
	학교폭력 피해경험	0.138***	0.029	0.251	0.189***	0.044	0.210	0.126	0.064	0.106
	성적	0.017	0.012	0.080	0.020	0.010	0.109	-0.015	0.008	-0.107
	학업 스트레스	0.037*	0.017	0.123	0.027	0.014	0.105	0.016	0.011	0.086
2006년 코호트										
가정환경	빈곤 여부	-0.035	0.023	-0.067	-0.017	0.023	-0.032	0.005	0.027	0.008
	부모 우울증 여부	0.023	0.023	0.044	0.003	0.022	0.005	0.018	0.029	0.028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0.207***	0.028	-0.34	-0.189***	0.021	-0.302	-0.130***	0.027	-0.219
	학교폭력 피해경험	0.108***	0.024	0.198	0.231***	0.027	0.318	0.261***	0.043	0.258
	성적	-0.007	0.013	-0.026	0.001	0.011	0.004	-0.015	0.011	-0.064
	학업 스트레스		-			-		0.017	0.015	0.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13>에 제시한 공격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코호트 집단 분석결과 초·중학교 시기에 공통적으로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생이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학교 시기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코호트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시기 모두 심리·사회적 학교환경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06년, 2015년 코호트의 변화 궤적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두 코호트 집단 각각에 대해 독립변인을 투입한 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에 주요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6년과 2015년 코호트에 대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 다집단 분석결과, 두 코호트의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 공격성 모두 초기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율의 경우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울·불안과 공격성은 두 코호트의 변화율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두 코호트 모두 우울·불안은 학교급 전환에 따른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았고, 공격성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주의집중문제와 위축의 경우 두 코호트 간 변화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 코호트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2015년 코호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집중문제와 위축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행동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두 코호트에서 나타난 주의집중문제와 위축 변화 양상의 차이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언

급되고 있는 주의집중 및 위축 문제의 심각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결과이다. 2000년대생의 경우 점차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접한 이전의 세대와 다르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 보급화되어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환경에서 발달하여 콘텐츠를 가볍게 소비하는 스낵 컬처(snack culture) 문화와 함께 짧은 길이의 콘텐츠를 즐기는 쇼츠(short) 세대로 일컬어진다(김은영 2023; McCrindle & Fell 2023). 이러한 인터넷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청소년의 집중력이 이전 세대의 학생들보다 현저히 짧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김연주 외 2022). 주의집중문제는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과잉행동으로까지 이어져 다른 정서 및 행동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Dulcan 1997) 학년급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이 심화됨에 따라 주의집중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됨을 고려했을 때(조주연·이은정 2019) 2000년대생 세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의집중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2015년 코호트의 경우 2006년 코호트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위축 문제 수준이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의 조사결과와도 부합하는데, 해당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와 같은 비자발적 고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 활동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령기 청소년기에 비자발적 고립을 경험한 2000년대생들이 겪는 위축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공격성과 같이 폭력적인 행동 등을 통해 바깥으로 문제행동이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달리, 보호자가 위축된 상태를 진단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보다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성이 큰 문제행동 유형에 해당된다(Rubin & Chronis-Tuscano 2021).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비행, 품행 장애를 보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문제행동 수준을 측정하여 위축과 같은 내현화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담임 및 상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어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 시기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환경 요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코호트 집단에서 초등학교 시기의 우울·불안에 대한 특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기의 경우 중

· 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부모의 우울증 여부가 초등학교생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임상적 우울증 기준을 초과할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기 청소년 시기 우울·불안에 가정 내 주된 양육자인 부모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며, 2차 성장을 통해 점차 자신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는 청소년기 발달상 특징과(홍강의 1984)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초기 청소년 시기의 정서 발달과 부모의 우울증 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우울증은 자녀에 대한 민감성과 상호작용을 저해하여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ffman et al 2006).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학령기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지원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상담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경우 단순히 학생 검사에 참여하거나 학부모용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보건복지부 2023a). 따라서 부모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초등학교 시기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함께 진단하고 가정환경과 연계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 요인과 더불어 학교생활 요인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생활 요인 중에서도 학생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은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 시기에서 정서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6년 코호트 집단과 2015년 코호트 집단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걸쳐서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령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교육적 개입 시에 학교 외부 차원에서의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앞서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원활하게 적응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2024)에서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생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위(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폭력문제 대응에서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에 대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 요인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요인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서 특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2006년 코호트 집단과 2015년 코호트 집단 모두 중·고등

학교 시기와 달리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 공격성 모든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문제 수준이 높았다. 초등학교 시기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생활 영역이 가정에서 벗어나 점차 또래집단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시점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향후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경험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 학교폭력 경험 비율이 초등학생이 3.9%로 중학생(1.3%), 고등학생(0.4%)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중·고등학교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따라서 학교 내의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또래관계, 교사와의 애착 형성(박효정 외 2010)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 요인 중 학업과 관련된 성적, 학업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 코호트 집단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모든 시점에서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위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코호트 집단 또한 학업 스트레스를 투입한 고등학교 시점에서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생활 요인 중에서도 학업 수행 과정 중에 경험하는 학습과 관련된 긴장, 불안, 부적응적 심리상태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2015년 코호트 집단의 경우 초기 청소년 시기 학업과 관련된 변인이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초·중학교 시기에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고, 초등학교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5년 코호트 집단의 초·중학교 시기에만 특징적으로 도출된 결과로, 오늘날 초·중학교 시기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초·중학교 시기의 학업 수행 경험은 학습량이 증가하고 입시 및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성취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고등학교 및 성인기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경험이 성취감과 내재적 동기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날의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학업 환경이 중요한 조건으로 경쟁적인 학업 환경은 압박 및 시험 불안을 높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민애·이빛나 2022; 오정희·선혜연 2013; 최희철 외 2024). 따라서 교사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닌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자율성을 가지고 학업 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종합했을 때, 초·중·고등학교 시기별로 성적, 학업 스트레스 및 학교 폭력 경험과 같은 학교생활 요인이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비롯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마음건강 지원 방안」에서는 정서행동문제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방안으로 ‘마음 챙김 교육’을 제공하거나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외부의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교육부 2024; 보건복지부 2023a).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학교 환경을 비롯하여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경험과 같은 학교생활 요인이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청소년의 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개입 시에 학교에서의 원활한 학업적·사회적 적응과 연계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사회적, 지역사회 요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오미에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기반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청소년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 수준을 낮추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교생활 적응과 연계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령기 청소년이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반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요인이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경험 및 학업에 대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서행동문제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이상 행동 양식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학업,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달함

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와 학교생활 관련 변인 간 내생성을 고려하여, 두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효과를 탐색하거나 선행 요인 및 결과 변인을 설정하여 종단적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등의 분석을 통해 두 변인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15년과 2006년 코호트 집단 모두 가정환경 요인 중 빈곤 가정 여부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구인회 외 2009; 박현선 2008; 이상균·유조안 2015)와 상이한 연구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학교생활 요인을 함께 모형에 투입하여 관련 요인이 통제됨에 따라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주거 형태, 비양친부모 동거가구 여부, 빈곤의 지속 여부와 같이 보다 다차원적인 가정의 빈곤 요인을 고려한다면 가정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관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12월 13일).
- 교육부. 2024.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교육부 보도자료(1월 3일).
- 구인회·박현선·정익중·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김가현·조명근. 2024.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전의 중·고등학생 정서문제 잠재 전이유형 비교.” 《교육연구》 46(1): 169-191.
- 김민주·이동귀.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69-89.
- 김연주·김민정·김은경. 2022. “수업때 만화 틀어줘도 10분 넘으면 집중 못해, 학교 ‘쇼츠 세대’ 교육법 고민.” 조선일보. 2022.02.03.
- 김은영. 2023. “주의력 3초·알고리즘 거부... ‘혼란의 시대’ 新소비권력 ‘잘파세대’가 온다.” 조선일보. 2023.11.06.
- 김현수. 2015. “코로나 19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서의 변화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3-98.
- 남석인·남보영·장은혜.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57-80.
- 도현심·신나나·박보경·김민정·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문은식. 202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연구논총》 23(1): 153-167.
- 박민애·이빛나. 202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따른 유형 분류 및 설명요인 탐색 : 랜덤포레스트 기법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3): 171-185.
- 박현선. 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113-137.
- 박효정·정미경·김효원. 201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분석.” 《한국교육》 37(4): 47-72.
- 반영석. 2018.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학연구》 25(1): 73-99.
- 배도희·오경자. 2010. “한국판 CBCL 공격행동척도의 하위 2요인 모형탐색.”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71-390.
- 보건복지부. 2023a.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b.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소아 청소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6월 6일).
- 서윤.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지속성 및 노출정도가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6): 223-253.
- 양태정. 2019. “학교폭력 관련 통계.” 《교육정책포럼》 318.
<https://kess.kedi.re.kr/post/6689953>.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오동균·권순용. 2019.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불안, 충동성, 우울, 자살 생각의 인과적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6(4): 29-45.
- 오미애·박성준·안주인·최호식·박민수·조현경. 2023. 《보건복지분야 위기대응 예측모델링: 정신건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정희·선혜연. 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3): 1981-1994.
- 이경화·손원경. 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6(4): 157-171.

- 이상균·유조안. 2015. “빈곤관련 가족환경 위험요인의 잠재계층유형과 아동 문제행동간의 관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실천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48(-): 29-57.
- 이영준·송원영·최의겸·신의진. 2003.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어머니의 우울증,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4(2): 218-228.
- 이자형. 2017. “교사들의 시선에서 본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4(3): 109-138.
- 이현숙·김수진·전수현.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학지사.
- 전신현·이성식. 201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작용과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8(2): 131-155.
- 조정숙. 2015. 《정서행동문제 아동을 위한 통합치료의 이론과 실제》 신아사.
- 조주연·이은정. 2019. “주의집중에 대한 교육신경학적 해석.” 《한국초등교육》 30(4): 1-12.
- 차미숙. 2024.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40(2): 77-92.
- 최윤영·김지혜·조선미·홍성도·오은영. 200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관련 태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153-162.
- 최혜정·김형관. 2021.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와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0(1): 83-105.
- 최희철·이미아·김영미·강혜진. 2024.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한국교육》 51(1): 179-2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강의. 1984. “제 2개별화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정신의학보》 8(12): 395-400.
- 홍경자. 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이 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김민선·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Achenbach, T.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entler, P.M., and D.G. Bonett.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entler, P.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e, M.W.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 154(-): 136-162.
- Coie, J.D. and K.A. Dodge.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Damon W. and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779-862). John Wiley & Sons.
- Dulcan M. 1997. "Practice Parameters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6(7): 894-921.
- Hoffman, C., K.A. Crnic, and J.K. Baker. 2006.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Children's Emergent Emotion Regulation and Behavioral Function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4): 271-295.
- Hu, L.T. and P.M. Bentler.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Kim, Y.S., B.L. Leventhal, Y.J. Koh and W.Y. Boyce. 2006. "School Bullying and Youth Violence Causes or Consequences of Psychopathologic Behavior?" *Arch Gen Psychiatry* 63(9): 1035-1041.
- McCrinkle, M. and A. Fell. 2023. *Generation Alpha: Understanding Our Children and Helping Them Thrive*. Hachette Australia.
- Meredith, W. and J. Tisak.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Michael, W. and G. David. 2011.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al or Emotion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128(6): 1126-1134.
- Muthén, L.K. and B.O. Muthén. 1998-2022. *Mplus User's Guide* (8th ed.). Muthén & Muthén.
- Nelson, J.R., S. Stage, K. Duppong-Hurley, L. Synhorst, and M.H. Epstein. 2007. "Risk Factors Predictive of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at 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Exceptional Children* 73(3): 367-379.
- Newman, D.L., A. Caspi, T.E. Moffitt, and P.A. Silv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Effect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06-217.
- Rubin, K.H. and A. Chronis-Tuscano. 2021. "Perspectives on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Past, Present, and Prospect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5 (3): 160-167.
- Steiger, J.H. and J.C. Lind. 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Psychometric Society Annual Meeting, Iowa City, IA.
- Subramani, C. and S. Kadiravan. 2017.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dian Journal of Applied Research* 7(5): 404-406.
- Teyber, E. 1983. "Effects of the Parental Coalition on Adolescent Emancipation from the Famil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3): 305-310.
- Tucker, L.R. and C. Lewis.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Whitaker B.G, and J.L. McKinney. 2007. "Assessing the Measurement Invariance of Latent Job Satisfaction Ratings across Survey Administration Modes for Respondent Subgroups: A MIMIC Modeling Approach." *Behav Res Methods* 39(3): 502-509.

<접수 2024.10.06; 수정 2024.11.04; 게재확정 2024.11.19>

Identifying the Trajectory of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 Impact of Family-and School-related Factors: A Comparison of the 2006 and 2015 Cohorts

Yeheun Baek
(Chungnam university)
Hyewon Chung
(Ch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s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epressed · anxious, attention problems, withdrawn, aggressive behavior) among adolescents dur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poverty, parental depression) and school life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academic performance, and academic stress).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child supplement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pecifically from the 2006 cohort (1st, 3rd, and 7th waves) consisting of individuals born in the 1990s, and the 2015 cohort (10th, 13th, and 17th waves) consisting of individuals born in the 2000s. A multigroup analysis using an unconditional latent growth model was conducted to explore whether the trajectori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iffered between these two gener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2006 and 2015 cohorts exhibited no significant changes in depression and anxiety over time, while aggressive behavior decreased. However, in the 2015 cohort, issues related to attention problems and withdrawn increased.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impact of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life factors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or both cohorts, the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and academic stress significantly affecte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t all school stages. In contrast,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2015 cohort was that parental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with higher academic performance dur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educational interventions specifically targeting attention problems and withdrawal,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ose born in the 2000s, along with the direction of school-based and policy-based support to promote adolescents' emotional development.

Key word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dolescence, cohort comparison, Korean Welfare Panel Study